

고린도 교회 우리의 이야기

: 고린도 교회로 보는 한국 교회 문제 고찰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허상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Sang Min He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ORY OF CORINTHIAN CHURCH AS OUR STORY : A STUDY OF ISSUES OF KOREAN CHURCHES WITH A LENS OF CORINTHIAN CHURCH

Sang Min Heo

Suin Church, Siheung

In Korea, there is an expression, 'Misery loves company,' which means 'shared sorrow can half a sorrow'. Although there is two thousand years of time difference between Corinthian Church and Korean Churches today, the obstacles they faced are very similar. In other words, suggestions for Korean Churches are able to be given by going over the problems Corinthian Church experienced and the guidance Saint Paul has given to the people of Corinthian Church.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explanation of I Corinthians in seven subdivided parts and description of how saints has taught people to solve the problems in there church. At the end of each footnote, there are questions for discussion so that it is able to think carefully on each issue. Second, sermons has written based on the guidance of Saint Paul, which was based on the five verses from the seven parts of I Corinthians. At the end of each sermon, there are some applied questions for audiences, which they are able to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by themselves.

국문초록

고린도 교회 우리의 이야기

: 고린도 교회로 보는 한국 교회 문제 고찰

허상민

수인 중앙교회, 시흥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다. 同(같은 동) 病(아플 병) 相(서로 상) 相(불쌍히여길 련)을 사용하는 이 말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략 이천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고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 시간적 차이가 무색하리만큼 닮아있다. 다시 말해 고대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동병(同病)으로 신음하고 있다본 논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던 병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바울의 처방을 살펴봄을 통해, 동병(同病)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린도전서를 7개의 본문으로 나누어 각 본문을 주석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그리고 각 본문의 주석 말미에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넣어, 더욱 깊은 묵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7개로 나눈 본문 중 5개의 본문을 선정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을 중심으로 설교문을 기록했다. 그리고 설교문 각 대지의 말미에는 적용 질문을 넣어 청중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목 차

감사의 글	vii
I. 서론	1
연구 동기와 방향	1
II. 본문주석	4
1. 십자가, 분열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약	4
2. 교회의 구원 문제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	14
3. 교회, 거룩한 공동.....	24
4.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의 포기	31
5. 존중, 공동체 안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가르침	39
6. 은사의 목적과 사용법	47
7. 부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55
III. 적용 설교	66
1. 십자가, 분열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약 (1:1-2:16).....	71
2.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의 포기 (8:1-9:27).....	73
3. 부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15:1-16:24)	79
참고문헌	86

감사의 글

2023. 3

허상민

20대 청년시절 늘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파고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꿀송이 보다 달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경험, 그 말씀이 제 마음 속에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러 저를 감동케 했던 경험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부터 묵상하고 연구했던 성경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갈수록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내적으로 갈등하고 아파하던 저를 위로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때면, 성경 속 고린도 교회와 오늘 날 제가 고민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교육하는 사도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한탄하기 보다, 사도처럼 한국 교회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땀흘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저의 귀를 열게 해준 첫 성경 교본은 '성경통독'이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박사과정을 공부하기까지 늘 탁월한 강의로 성경의 참 맛을 알려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신선한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주신 래너드 스윗 교수님과 시작부터 끝까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로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의 길을 앞서 가시며 먼저 수고의 본을 보여 주신 부모님과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어름과 장모님, 무엇보다도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아내 한별과 사랑하는 두 딸 유나와 예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5

허상민

제 1 장

서 론

연구 동기와 방향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다. 同(같은 동) 病(아플 병) 相(서로 상) 相(불쌍히여길 련)을 사용하는 이 말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대략 이천년이라는 시간적 간극¹이 존재하는 고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 시간적 차이가 무색하리만큼 닮아있다. 다시 말해 고대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동병(同病)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첫 번째는 분열과 갈등이었다. 고린도 교회는 3개 혹은 4개의 분파로 갈라져 고립되었다. 분파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라 생각하며 서로를 배격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문제였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의 죄에 침묵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 교회 안에 풀어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자행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의 문제였다. 고린도 교회 내 소위 ‘강한 자’ 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¹ 고린도서는 역사적 배경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기록 연대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개 주후 53년 말 내지는 54년 초로 추정한다.

문제가 자신에게 어떤 유혹도 주지 못한다는 교만함으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여 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약한 자’ 들이 실족하는 일, 다시 말해 과거 우상을 숭배했던 죄의 유혹에 다시금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학적 혼란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오해했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은 공동체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상 네 가지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씨를 뿌려 세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그런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괴롭힌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오늘 날의 한국 교회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미 20여전 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 아무 감흥이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산재한 문제가 있다. 한구 교회가,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우리는 너무 지쳤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황폐해져 있다.

우리와 같은 동병(同病)으로 신음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붓은 든 사도는 결코 절망과 비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편지(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았다. 그는 중병(重病)으로 신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이들이 다시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절망이 아닌 열정으로, 그릇된 교회의 행태를 책망하고 꾸짖었다. 비관이 아닌, 집념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힘썼다. 바울의 편지(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려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묻어 있다. 절망과 비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고, 바울의 열정과 집념을 품고, 한국 교회의 나아갈 내일을

그리길 꿈꾸는 분들과 이 글을 나누고 싶다. 본 논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던 병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바울의 처방을 살펴봄을 통해, 동병(同病)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린도전서를 7개의 본문으로 나누어 각 본문을 주석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그리고 각 본문의 주석 말미에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넣어, 더욱 깊은 묵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7개로 나눈 본문 중 3개의 본문을 선정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을 중심으로 설교문을 기록했다. 그리고 설교문 각 대지의 말미에는 적용 질문을 넣어 청중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제 2 장

본문 주석

1. 십자가, 분열 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약 (1장 1절 - 2장 16절)

1.1. 들어가는 말

고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독자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특별히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현재의 우리네 교회들의 현실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타산지석 삼아 바른 교회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1.2. 자기소개 및 인사(1:1-3)

고린도전서는 대부분의 바울서신과 같이 그 첫머리에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하며 시작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다. 이는 본 서신보다 먼저 기록되었으나, 사도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과 대비된다. 박익수는 본 서신에 이르러 처음으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 강력하게 진술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인들에 의해 그의 사도적 가르침이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² 고린도전서 내 다른 본문, 곧 4장 1절 - 21절과 9장 1절 - 23절은 박익수의 이 주장을 방증한다. 바울은 2절의 기록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호칭한다. 이것은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란 수식어를 교회 앞에 놓음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정 사도를 중심한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³ 3절의 은혜와 평강은 당시 의례적으로 사용 하던 그리스 로마식 인사와 유대교식 인사가 혼용 된 표현이다. 바울은 이 통상적 인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 되던 의례적 인사를 기독교화 시켰다.⁴

1.3. 바울의 감사(1:4-9)

본 단락에 기록 된 바울의 감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헤이스는 바울이 조소적 논조를 가지고 본 단락을 기술했음을 주장한다.⁵ 이에 반해 박익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을 사실대로 묘사한 것으로 간주한다.⁶ 본 단락 속 바울의 감사는 조소였을까, 아니면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을까? 이어지는 8절을 통해 바울은 주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견고히 하실 것을 이야기 한다. 또한 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²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77.

³ Ibid., 78.

⁴ C.L Blomberg, 『고린도 전서』 채천서역 (서울: 솔로몬, 2012), 44.

⁵ R.B Hays, 『고린도전서』 유승원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53.

⁶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80.

교회 성도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히 교제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어찌면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부족함과는 별개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감사의 근거가 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1.4. 고린도 교회가 앓던 중병(重病), 파당(1:10-17)

1.4.1. 촉구(1:10)

통상적인 인사와 감사 이후, 본 단락에 이르러 바울은 자신이 다루고 싶었던 핵심적 주제로 접근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됨을 향한 강력한 촉구이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선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 앞에 덧붙였던 ‘진실로, 진실로’ 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호소할 때 사용되던 선언이다.⁷ 그는 한 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기록 속에서 무려 세 번(같은 것을 말하며, 분쟁을 없이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이나 반복해서 일치를 촉구하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하나 됨을 향한 바울이 가진 강력한 의지를 확인케 한다.

1.4.2. 분파 양상(1:11-12)

전통적인 해석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도함 네 개의 파당이 존재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박익수는 본 단락에 등장하는 4개의 분파가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상적으로 네 개로 인정되던 고린도교회 내 파당을 두 개, 곧 바울파와 그리스도파로 축소한다.

⁷ K.E Bailey,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김귀탁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97.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교회 내 한 신앙 경향성,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나 실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교만한 신앙 경향성을 가진 무리가 하나의 파당을 이루었고 이것이 기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와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다.⁸ 이에 반해 최원준은 그의 논문 ‘고린도 교회 분열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3개의 파당, 곧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음을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파는 어떤 특정한 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 파가 서로 자기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⁹ 또한 베일리는 다문화적인 중동 지방에 수십 년을 살며 쌓은 민족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파당 형성에 민족적 충성심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한다.¹⁰ 그는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이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이었음을 밝히며 고린도 교회 내 파당 형성이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그리스인은 동족이었던 아볼로를, 유대인은 게바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추종하고자 했고, 이 그릇된 민족적 충성심이 파당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한편 티슬턴은 본문에 언급 된 바울, 아볼로, 베드로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정치적 슬로건의 일부였을 뿐 실제적인 충성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¹¹ 그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자기 지위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무리가 존재했음을 밝힌 플루타르크의 연구를 근거로, 고린도 내 존재했던 파당들 역시 그런 색깔을 가진 무리였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심지어 직접 설교를 들어

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83.

⁹ 최원준,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12.

¹⁰ Bailey,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98.

¹¹ A.C Thiselton, 『고린도전서』, 권연경역 (서울: SFC출판사, 2011), 80.

본 적도 없는 지도자들을 들먹임으로써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려 했던 시도로 간주한 것이다.¹² 여러 견해 가운데 티슬턴의 견해는 보다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를 따라 과당을 해석 할 때라야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이 처방으로 내놓은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1.4.3. 바울의 훈계(1:13-17)

고린도 교회가 과당 형성이라는 중병(重病)에 걸려 신음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울은 한 가지 역설적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훈계한다.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내 나뉘어 분쟁하고 있는 각 분파가 그리스도를 찢어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어지는 세례에 대한 언급(13절)은 세례가 고린도 교회 과당 형성의 뿌리였음을 암시한다. 곧 자신에게 세례를 준 집례자의 그늘 아래 몇몇 성도들이 모였고 여기에 지도자(집례자)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그 영광을 나눠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합세해 과당이라는 중병(重病)을 낳은 것이다. 바울은 14-16절에서 그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 시킨다. 이는 거룩한 세례가 과당 형성에 일조한 현실에 마음이 아파, 오히려 자신이 대규모로 세례를 베풀며 바울파를 더 많이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¹³ 17절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신의 본래 사명을 밝힌다. 이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의 지혜란 그리스-로마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로 연설에 동원된 수사학적 기술을

¹² Thiselton, 『고린도전서』, 81.

¹³ Ibid., 83.

가리킨다.¹⁴ 17절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음하고 있던 과당 형성이라는 중병을 치유할 처방(處方) 하나를, 슬그머니 제시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1.5. 바울의 처방(處方) 하나, 하나님의 지혜 : 십자가(1:18-2:5)

1.5.1.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대조(1:18-25)

앞선 본문 배경 이해 단계에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지역 사회 근저에 흐르던 성공 지향적 삶의 태도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문 주석 단계(3.2. 분과 양상, 3.2.2. 바울의 훈계)를 거쳐 이 성공 지향적 삶의 태도가 세례와 결합하여 과당이라는 중병(重病)을 낳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바울이 심각한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능력이었다. 티슬턴은 마틴 행엘의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십자가는 너무 역겨운 것이어서, 정중한 분위기의 대화에서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주제였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신과 같은 구원자를 상상했다면, 혹은 유대인의 경우 능력과 위엄으로 기쁨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역겹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이었다.¹⁵

그의 연구에 근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¹⁴ 최원준,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98.

¹⁵ Thiselton, 『고린도전서』, 87.

당시 그들이 추구하고 염원하던 영광스러운 성공과는 대비되는 가증한 실패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로마에서 십자가가 형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처음 십자가형은 사람을 나무에 묶어 놓는 수준 정도였지만, 점차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형 집행으로 그 본질이 바뀌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십자가에 오른 사형수들은 벌거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겂옷과 속옷이 강제로 벗겨져 팬티도 안 입은 상태에서 처형되었다. 또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잔인한 사형 집행법이었다. 그렇기에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속국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음은 자명하다. 이에 근거했을 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성공 지향적 신앙에 불편함을 주는 십자가를 마치 집 안 한 구석에 방치해 둔, 먼지 쌓인 애물단지와 같이 취급했었을 것이다. 바울은 18절의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 십자가 복음의 실체를 회복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단락에서 그는 세상의 지혜, 곧 그들이 염원하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지혜가 결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 없음을 강조한다(25절). 그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라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1.5.2. 고린도 교인들의 경험 :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¹⁶(1:26-31)

본 단락(26-3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험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능력이 되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고린도 교회 내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예들이나 해방된 자들,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었다는 김세윤의 주장을 근거해 보았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자들’ 이요, ‘연약한 자들’ 이요, ‘천민 출신자들’ 이었다.¹⁷ 바울은 본 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한 자, 곧 문벌 좋고, 능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셨다고 강조한다. 만약 십자가가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성공, 곧 강함을 추구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본 단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십자가와 대조하며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성공, 곧 강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던 성공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가증한 실패로 여기며 외면하던 십자가의 지혜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1.5.3. 고린도에서 바울의 경험 :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2:1-5)

본 단락에서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들러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던 때를 회상한다. 그는 그가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을 상기 시킨다(3절). 이는 자신의 복음 증거 태도와 증언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얼마나 일치한가를 보여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¹⁸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수려한 언변이나 수사학적 말의 기교로 고린도 교인들이

¹⁶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07.

¹⁷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6), 64.

¹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11.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인간 지도자의 영광에 편승해 세상 성공, 곧 강함을 추구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 바울의 처방(處方) 들, 성령을 통해 깨닫는 십자가의 지혜(2:6-16)

앞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파당을 이루어 사분오열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처방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 올 것을 촉구했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오로지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그는 6절에서 온전한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온전한 자들은 많은 경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다.²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다. 14절에는 이 온전한 자들과 대비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언급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를 분별할 수 없다. 14절의 대조를 통해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너무 심오하여 사람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²¹

¹⁹ 최원준,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02.

²⁰ 고전14:20, 빌3:15, 골4:12, 히5:14를 보라.

²¹ Thiselton, 『고린도전서』, 108.

1.7. 나가는 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날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떠올리게 한다.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라는 중병에 걸려 신음했던 것처럼 오늘 날 한국교회 또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알력 싸움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중병을 치유하기 위해 내린 처방은 수 천 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 넘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유효하다.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 갈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성숙이 일어 날 수 있음을 그는 호소한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속화된 신앙의 길을 접고 다시 약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령을 통해 그 일이 한국 교회에 속히 일어나길 소망한다.

1.8. 토론을 위한 질문

- ㉔ 바울은 자신의 사도 됨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권면의 말을 담은 편지(고린도전서)를 보냈다. 사도가 감정과 혈기가 아닌, 사랑과 인내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였을지 나누어 보자.
- ㉕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며, 먼저 성도들에 관해 칭찬하고 감사한다. 이때 바울의 칭찬과 감사는 진심이였을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조소였을까?
- ㉖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십자가의 이미지와 오늘날의 십자가의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 ㉠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십자가를 향한 오해를 나누어 보자.
- ㉡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며, 먼저 성도들에 관해 칭찬하고 감사한다. 이때 바울의 칭찬과 감사는 진심이였을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조소였을까?

2. 교회의 구원 문제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3장 1절 - 4장 21절)

2.1. 들어가는 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매우 유사하다. 심지어 그 문제점까지 매우 닮아있다. 본 단락에 특히 두드러진 문제점은 바로 자기 자랑과 세상 지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본문을 주석함을 통해 드러내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2.2.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3:1-4)

바울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을 훈계한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그리고 영적 양식을 젖으로 비유하며 그들의 자라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비유는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 교훈과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용어이다.²² 1절과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로 번역된 표현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반역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즉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자아’ 혹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추구되는 삶’ 을 말한다.²³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사람들을 뜻한다.²⁴

2.3.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와 지도자(3:5-23)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말한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은유로 들어 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 세 가지이다. 바울은 교회를 구조적인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공동체로 본다. 바울의 은유들은 모두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은유적 표현 대상이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²⁵

2.3.1.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교회(3:5-9)

5절은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나온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를 교회에 적용하여 교회 지도자들로 그들의 후견인을 삼아 덕을 보려는 성도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⁶ 바울과

²² Hays, 『고린도전서』, 100.

²³ Thiselton, 『고린도전서』, 118.

²⁴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35.

²⁵ Hays, 『고린도전서』, 106.

²⁶ Thiselton, 『고린도전서』, 120.

아볼로는 각자의 역할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오로지 하나님은 계속 자라게 하심”이란 문장을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 강조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실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유역한 누군가가 아닌)임을 드러낸다. 바울은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농부로서 본인과 아볼로를 소개했다. 농부의 역할은 농작물을 돌보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그런 농부(유력한 자)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드러낸다. 또한 바울은 9절에서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볼로가 함께 고린도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고린도교회 성장을 도운 모든 사람을 묶어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밝혔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밭인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주장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²⁷ 아볼로와 바울 등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주인행세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2.3.2.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3:10-15)

바울은 본 단락을 통해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의 기초이시다(11절).²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위에 반드시 서야만 한다. 또 건물이 건물로서의 제 기능을하고, 든든히 서려면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어떤 부분에도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⁹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를

²⁷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38.

²⁸ Thiselton, 『고린도전서』, 126.

²⁹ Ibid.

비유를 통해 바울은 교회 또한 각 지체가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여 자기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으로 함께 수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12절을 보면 어떤 자들은 불에 타지 않는 좋은 자재로 건축하는 반면, 다른 자들은 불에 타 없어질 부실 자재로 금방 무너질 집을 짓고 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나는 ‘보상’ 과 ‘손해’ 의 구도가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다. 왜냐하면 본절 속 바울의 주장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³⁰ 먼저 바울이 철저히 헬라적 사고와 반대되는 유대적 전통에 서서 본절을 해석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세워야 한다. 유대적 전통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상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모든 율법적 형태를 반대함과 동시에 모든 방종과 비윤리적인 영성에 확실히 배격했던 그의 신학의 틀 안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³¹ 15절은 은유이다. 아모스 4장 11절에 기록된 불을 인용한 것이다. 이 본문은 한 개인 신자의 구원 문제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교회 공동체 혹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 말하면서 지속적인 방종의 모습을 보이면, 불 시험으로 구원의 탈락이 가능함을 말한 것이다.³²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현재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바울과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그러나 성도들이 현재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정도를 벗어난 길로 계속 행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³⁰ Hays, 『고린도전서』, 112.

³¹ G.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143.

³² 이진섭, “교회의 구원과 멸망위험(고전 3:14~15)”, 『성경과 교회』 6, 202.

위험에 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³³

2.3.3.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3:16-17)

본 단락에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지칭하는 유대 묵시 문학과도 관련이 있다.(사28:16-17).³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핵심 장소이다. 그럼에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 공동체를 향해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바울이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다.³⁵ 이를 통해 바울은 이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즉 1장 10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분열을 보이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경쟁적 분열 양상을 보이며 자기를 주장하기 바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본질을 위협하는 모습이라 바울은 강조한다.

³³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44-45.

³⁴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40.

³⁵ Hays, 『고린도전서』, 115.

2.4. 모두 다 하나님의 것(3:18-23)

18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은 인간의 지혜를 떠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진정한 지혜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19절과 20절의 인용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어떤 지혜도 결국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주체로 드러날 것을 강조한다. 21절에서 23절은 사람을 자랑함과 예수를 자랑함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고린도 교인이 여러 지도자에게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로 종속 되는 것을 즐겨했던 행태를 배격하며 성도 된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논지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밝히 드러낸다.³⁶ 중심 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4-9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 3:10-15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 3:16-17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 3:18-23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건축물이요, 성전이요, 소유이다.³⁷

2.5. 그리스도의 일꾼들(4:1-21)

본문은 1~4장까지의 기록의 결론에 해당한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³⁶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42.

³⁷ Thiselton, 『고린도전서』, 145.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결론에 도달한다. 바울은 일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모든 자가 동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교인들에게 사도직과 사도직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표본을 제시한다.³⁸

2.5.1. 좋은 오직 주인에게 판단 받음(4:1-5)

1절에서 5절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의무에 관해 역설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말은 자(오이코노모스)라는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말은 자(오이코노모스)는 관리와 노예의 모습을 연상하는 단어이다. 3절에 등장하는 ‘판단’이라는 단어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판단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³⁹

2.5.2.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과 고난당하는 사도의 대비(4:6-13)

기록된 것을 넘어가지 말라(6절)라는 구절은 성경과 사도적 교리의 틀 내에서 이해해야 할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넘어서는 것, 그들 나름으로 만들어 낸 소위 고차원적인 복음의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무언가 더하여 자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³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45.

³⁹ Hays, 『고린도전서』, 125.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인 양 자랑했다. 8절에서 10절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역설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여 그런 교인들을 비판한다. 당시 많은 종교적 제의에서 사용하는 승리 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들을 차용함을 통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역설적으로 꼬집는다. 예를들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승리 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책망한다.⁴⁰ 고린도교인들의 승리 지향적 태도와 바울의 모습은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바울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죽이기로 작정 된 자, 구경거리,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 일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당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다시 말해 세상이 알아주는 모습을 추구 했던 것이다.⁴¹

2.5.3. 바울의 신실한 목회적 돌봄(4:14-21)

바울은 14절의 기록을 통해 지금까지의 질책이 고린도 교인들을 면박하기 위함이 아님을 말한다. 오히려 그들을 자녀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그는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낳은 자식들이 고린도 교인임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스승은 당시 후견인제도가 발달한 도시의 노예 혹은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바울은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으로 양육한 영적 아버지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다.⁴² 바울의 목회적 돌봄의

⁴⁰ Thiselton, 『고린도전서』, 145.

⁴¹ Ibid., 147.

⁴²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54.

방식은 첫째, 서신 독자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돌봄이다. 종합해보면 그의 말과 그의 삶, 행동 자체가 목회적 보살핌의 방식이었다.⁴³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을 바른 교리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본받는 실례를 디모데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였다.⁴⁴ 18에서 2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나아간다’ 라는 표현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말한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할 것임을 드러내며 바울이 쓴 권면과 질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 아버지처럼 매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로 방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⁴⁵

2.6. 나가는 말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바울의 글을 통해 진정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지양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 던지며, 바울은 교회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이며 성전임을 강조한다. 또한 교회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을 역설한다. 본 단락의 주석함을 통해 오늘 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쁜 세상 풍조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⁴³ Thiselton, 『고린도전서』, 153.

⁴⁴ Hays, 『고린도전서』, 140.

⁴⁵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56.

2.7. 토론을 위한 질문

- ㉔ 세상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역시 세상 지혜가 교회 안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괜찮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가? 있다면 나누어 보자.
- ㉕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희열과 뿌듯함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본 단락 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비교하며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보자.
- ㉖ 본 단락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지 나누어 보자.
- ㉗ 본 단락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마다 오랜 기간 훈련 받고 양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나누어 보자.
- 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할 때 큰 결실을 본 경험이 있는가? 그로 인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나누어 보자.

3. 교회, 거룩한 공동체 (5장 1절 - 7장 40절)

3.1. 들어가는 말

본 단락은 음행과 성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개인의 음행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에 관해서도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 또한, 음행과 성의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교회를 회복하는 강한 외침이 될 것이다.

3.2. 공동체의 거룩성(5:1-6:20)

표면적으로 5장과 6장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문을 관찰하면, 하나로 묶이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향한 바울의 관심이다.

3.2.1. 교회의 누룩을 제거하여 거룩 하라(5:1-13)

1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책망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범죄자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한히 여기지 아니한다(5:2)’ 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꺼내 든 이유에 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⁴⁶ 고린도 교회의 일명 ‘영 열광주의자’ 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했다. 자신들은 육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모든 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육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그 상황을 책망하기 위해 ‘교만’이라는 주제를 꺼내 든 것이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범죄자를 징계한다. 징계의 내용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는 것’ (5:3)이다. 이 부분을 김지철은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⁴⁷

신앙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정죄하여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궁극적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철은 이 말과 더불어 ‘출교는 영원한 추방이 아닌, 회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행위’ 라고 설명한다. 결국, 범죄자를 내쫓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와 개인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 충고한다. 특히 공동체 안에 발생한 음행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며, 유월절의 내용을 언급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 듯,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의 문제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그 악영향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익수는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⁴⁸

⁴⁶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72.

⁴⁷ 김지철,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32.

⁴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79.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 중에 빵에서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하며 부도덕한 생활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5장의 내용은 언뜻 개인의 성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보면, 공동체의 거룩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어지는 6장 앞부분과 연결된다.

3.2.2. 거룩한 교회답게 행동하라(6:1-11)

1절에서 8절 사이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서는 교인들을 비판한다. 본문 당시 민법을 판결할 때는 판사나 배심원들이 모두 대가를 기대하고 판결을 내렸다. 즉,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승소한다는 의미였다. 이런 배경이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왜 법정에 가는 것을 비판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본문은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혼드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⁴⁹ 이 부분에 관한 다른 해석들도 있다. 먼저 박익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 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해 판단 받을 자가 아니라, 판단할 자이다.
- ㉕ 세상 법정의 사람들은 불의한(대가를 기대하고 판결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다.
- ㉖ 교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㉗ 교회 안의 치부를 세상 법정에 드러내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⁴⁹ Thiselton, 『고린도전서』, 168.

⁵⁰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87.

약간의 해석상의 이견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0절 사이의 기록을 통해 바울은 다시금 교회 안의 음행에 관한 문제로 초점을 옮긴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단어는 ‘몸’이다.⁵¹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용한 몇 가지 구호가 있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 우리들은 창녀에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행동했다. 바울은 그런 구호를 외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에 대해서 말하며 생각을 교정시킨다. ‘몸’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단어다.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육적인 범주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영 영광 주의자들의 생각을 ‘몸’이라는 단어로 교정시킨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여 말한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정결해야 하고,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3.3.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7:1-40)

본단락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답변하는 바울의 응답을 기록한다. 특별히 바울은 본 단락을 통해 결혼, 독신, 혼자가 된 사람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 박익수는 고린도 교회의 성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⁵²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와 반대로 결혼과 성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헬라적인

⁵¹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193.

⁵² Ibid., 211.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은 소멸될 것이기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와 반대로 엄격한 금욕주의 경향들이 나타났다.

이런 문화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과 성에 대해 양극단의 문제가 나타났다.

3.3.1. 결혼한 사람에 대한 권면(7:1-7)

1절은 결혼한 사람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다.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7:1)” 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성에 관해 지나치게 억제했던 성도들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성에 관한 양극단의 문제가 있었다. 한쪽은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 했고, 한쪽은 지나치게 억제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후자의 목소리를 내는 성도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7:2)’ 고 권면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부 관계가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7:4)’ 는 그 당시의 여성은 무시되고, 남자에게 치중되어있던 결혼관을 깨는 가르침이었다.

3.3.2. 혼자된 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7:8-16)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에게 권면한다. 그 당시 혼자가 된 사람은 1년 안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본인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할 뿐, 명령하지는 않는다. 즉,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말고, 당분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권면을 하는 것이다.⁵³ 10절과 11절에서는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다. 바울은 간단명료하게 권면한다. 이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혼한 시대에 쉽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권면이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앞 절과 달리 신자와 불신자인 부부에게 권면한다. 앞 절의 권면과는 다르게 불신자가 혼인 관계를 중단하기 원하는 때에만 이혼을 허락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통해 관계의 중단이 아닌, 관계의 지속을 권면한다.

3.3.3. 바울의 권면의 일반화(7:17-24)

본 단락에 관한 블룸버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⁴ 7장은 1~16절(A) 17~24절(B), 25~40(A)절을 나누어 ‘A.B.A 구조’를 지닌다. B가 논증의 중심적인 초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앞 뒤 A가 B의 적용 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A의 권면들을 B로 일반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B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나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충성 되게 살라는 것이다.

3.3.4. 네 그룹에 대한 바울의 권면(7:25-40)

본 단락은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다. 대상은 다르지만, 권면의 논지는 비슷하다. 바울은 모든 대상을 향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⁵³ Thiselton, 『고린도전서』, 196.

⁵⁴ Blomberg, 『고린도전서』, 167.

권면한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한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위한 삶이 우선적이 될 위험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뜻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본인 뜻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나, 결혼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본단락에 드러난 바울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초점이 아닌, 결혼하더라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⁵⁵

3.4. 나가는 말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는 현대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 성 문제, 신앙의 오해로 인해 생기는 모습,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 등,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산재한 비슷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3.5. 토론을 위한 질문

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자를 출교하는 것(고전5:5)이 옳은가, 용서하고 품는 것이 옳은가?

㉕ 성범죄를 일으킨 목회자(혹은 성도)가 고전 6장 1절 -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⁵⁵ Blomberg, 『고린도전서』, 178.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릇된 신앙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현대 교회에도 그릇된 신앙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 ㉕ 바울의 7장의 권면을 보면,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며,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 ㉖ 이혼은 절대 불가인가? 아니면 언제 가능한가?

4.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의 포기(8장 1절 - 9장 27절)

4.1. 들어가는 말

우상 제물이란 신전에 바쳐진 음식(고기)을 가리킨다.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 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자신들의 권위로 인식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들이 그로 인해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본 단락을 통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2.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편지(8:1-13)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의한 또 다른 주제, 곧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 다룬다. 다룬다.

4.2.1. 지식에 근거한 삶(8:1-6)

본 단락은 지식과 사랑에 관해서(8:1-3),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8:4-6) 다룬다. 본 단락이 속한 8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두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⁵⁶ 한 집단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8:4) 라는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월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집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상의 헛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약한 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이었다.⁵⁷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8:1)는 말로 지식 있는 ‘강한 자들’을 훈계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과도하게 주장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식만 있을 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4.2.2. 사랑에 근거한 삶(8:7-13)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은 여전히 우상의 것으로 생각했다. 그 자의식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지속하면 중국에는

⁵⁶ Thiselton, 『고린도전서』, 228.

⁵⁷ Ibid., 229.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행동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⁵⁸ 바울은 9절부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식에 근거한 자유로운 행동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배려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배려는 강한 지식(혹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권리 포기이다. 바울은 그들이 누리는 권리로 인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범죄라고 질책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16-17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 했다. 성령의 전인 성도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범죄 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 권면한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그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약한자들을 넘어진게 한다면, 미련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겠나로 말한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바울을 해결책은, 옳고 그름의 율법적 잣대가 아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랑이었다.⁵⁹

4.3.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9:1-27)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 권리 포기를 촉구한 바울은, 본 단락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권리를 어떻게 말한다. 그 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10:1-11:1). 일련의 기록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 특별히 바울의 사도 권에 의문을 던지는 자들을 염두에 둔 기록으로 보인다.

⁵⁸ Thiselton, 『고린도전서』, 238.

⁵⁹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252.

그들에게 바울의 모습,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은 성도 사랑의 좋은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⁶⁰ 이를 통해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고린도 교회 내 소위 ‘강한 자들’을 훈계하며 자신의 사도 권을 변호했다.

4.3.1.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증(9:1-12a)

바울은 질문의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한다. 무려 15번의 질문을 사용하였고, 모두 ‘예’ 라는 답변을 요구한다. 이는 ‘강한 자들’이 지식과 자유를 근거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강한 반박이다. 먼저 바울 자신은 사도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은 ‘내가~이 아니냐’ 라는 일인칭 주어가 사용되었다. 이어진 3절에서 13절은 주어가 3인칭 ‘우리가~할 권리가 없느냐’ 로 바뀐다. 이는 바나바와 선교 동역자들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⁶¹

‘권리’ 라는 단어는 본 단락에서 핵심단어이다.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다섯 비유(군인, 포도원 일꾼, 목자, 밭 가는 자, 타작하는 자)를 들어 설명한다. 이 비유들은 모두 바울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바울 또한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증했다. 8장의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 했던 강한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증으로 볼 수 있다.⁶²

⁶⁰ Hays, 『고린도전서』, 211

⁶¹ 김지철, 『고린도전서』, 350.

⁶² Thiselton, 『고린도전서』, 254.

4.3.2.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리 포기(9:12b-18)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 때문이라 바울은 말한다. 자신의 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다. 바울은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절했다. 바울은 이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9:15). 15절은 ‘내가’ 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강조의 의미이다. 이 권리 포기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임을 드러낸 것이다. 바울은 8장부터 이어온 논의의 결론을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 포기로 제시한다. 이것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적절한 사용이었다.⁶³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용한다. 그 권리 속에는 그가 복음을 위해 권리를 누리지 않기로 한 선택까지도 포함된다.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 을 몸소 실천함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4.3.3.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종이 된 바울(9:19-23)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9:1)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육체의 유익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하였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다른

⁶³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266.

사람의 유익이었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20절에서 22절은 이를 위해 네 집단에서 그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말한다. 바울이 예로 든 네 집단에 관해 티슬턴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티슬턴은 바울이 언급한 네 집단은 반대편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외부자’였고, 이 외부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과 보살핌과 배려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라 말한다.⁶⁴ 신약의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외부자들과 소통하며 친구가 되어주셨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종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된 것이다. 22절에 기록된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구절은, 8장부터 이어온 바울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므로 티슬턴의 견해는 매우 적절하다.

4.3.4. 상 받기 위한 경주(9:24-27)

본 단락에서 바울은 달리기와 권투 경기의 모습을 빌려 그리스도인이 상 받기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 바울은 경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한정된 사람만이 획득한다는 뜻은 아니다. 복음을 위한 경주는 최종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다.⁶⁵ 따라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 삶의 본이 되었다. 그 또한 권리를 누리고 싶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바울의 이 분투를 9장의 마지막 두 구절(9:26-27절)이 잘 보여준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경주할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었다. 바로 다른

⁶⁴ Thiselton, 『고린도전서』, 262.

⁶⁵ 김지철, 『고린도전서』, 373.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친 훈련을 했다. 그가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이유는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함 때문이었다. ‘버림을 받다’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거절된 것을 말한다. 김지철은 이를 단지 상을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 대한 상실까지도 의미한다고 말한다.⁶⁶ 이런 논증을 통해 바울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4.4. 나가는 말

본문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상 제물을 대할 때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권리를 절제할 것을 가르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 사랑임을 그는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은 공동체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라 가르쳤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소위

⁶⁶ 김지철, 『고린도전서』, 375.

성장한다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 성도들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 회심한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먼저 믿음 자들이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잡고,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본 단락 속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요, 믿음 약한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임을 말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되살아나야 할 가르침이다.

4.5. 토론을 위한 질문

- ㉠ 우상 제물을 고기로만 한정시킬 수 있을까? 티슬턴은 ‘고기’를 ‘음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확대한다면 오늘 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할 가르침은 무엇일까?
- ㉡ 믿기 이전의 사고 혹은 행동의 습관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지나치게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쉽게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그로 인해 생기는 이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 오늘날 자발적 권리 포기라는 원리를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 ㉣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어디까지 가야할까? 전도 대상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모양과 성격의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㉞ 성도의 금주와 금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존중, 공동체 안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가르침 (10:1-11:34)

5.1. 들어가는 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각각의 교회와 개인마다 다르다. 본 단락을 통해 먼저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 가르침(10:1-11:1)을 정리하고, 공중 예배 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11:2-6)과 성만찬의 올바른 집행(11:17-34)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하고자 한다.

5.2.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10:1-11:1)

우리는 이전 장(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제물에 대한 태도를 보았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방 신전 잔치에 참여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방 제사에 연관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⁶⁷ 8장에서 처음 제기된 이 문제는 본 단락을 통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로 확대된다.

⁶⁷ Hays, 『고린도전서』, 275.

5.2.1.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10:1-22)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제시함으로 고린도교인들을 교훈한다. 1절에서 5절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했음을 보여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⁶⁸ 6절의 즐거움은 ‘탐욕’으로 번역되는데 그 탐욕은 네 가지 범죄와 연관된다. 첫째, 이방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였던 모습(출32:6)과 동일한 우상숭배이다.⁶⁹ 둘째, 싯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먹고 마셨던 모습(민25:1-3)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적 부도덕을 경고한다.⁷⁰ 셋째,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이다.⁷¹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약한 정책을 취하는 바울에 대한 원망과 연결된다.⁷² 원망의 모습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울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했던 ‘강한 자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한다.

13절은 ‘약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고린도교회의 ‘강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반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모습을 시험으로 여겼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시험은 누구나 겪을 수

⁶⁸ 김지철, 『고린도전서』, 379.

⁶⁹ Hays, 『고린도전서』, 282.

⁷⁰ Ibid.

⁷¹ Thiselton, 『고린도전서』, 275.

⁷² Ibid., 276.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성만찬(10:16-17), 희생제사와 관련된 유대인의 식사(10:18), 이방 신전에서 주어지는 식사(10:19-21)로 세 가지 종류의 식사를 언급한다. 이 식사들은 그의 신과 참석하는 자들 간의 교제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⁷³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된다. 바울은 우상 제물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귀신의 존재는 경계한다(10:19). 결론적으로 그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해서 안 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다.

5.2.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10:23-11:1)

본 단락에서 바울은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는 ‘유익’과 ‘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교훈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10:25-27). 첫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다.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식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둘째는 불신자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을 제물이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아야 한다 그는 가르친다. 이어지는 10장 29b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는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구절은 10장 25절에서 27절의 기록과 견하여 이해해야 한다. 10장 29b절을 이해하기 위해

⁷³ Hays, 『고린도전서』, 287.

본 단락을 다음의 두 가지 요지로 정리하고자 한다.⁷⁴

요지 A : 모든 행동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요지 B : 이 원칙 안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있는 자유를 누린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요지 A’ 라는 큰 틀 안에 ‘요지 B’ 를 넣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A). 이 원칙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B).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A). 그렇다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B).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A). 이러한 모습은 최종적으로 바울 자신을 본받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임을 그는 교훈한다(11:1).

5.3. 공중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11:2-34)

11장은 공적 예배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11:2-16)이며, 둘째는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11:17-34)이다. 11장의 흐름은 8장부터 이어진 ‘다른 이에 대한 존중’ 과 연결된다.⁷⁵

⁷⁴ Hays, 『고린도전서』, 297.

⁷⁵ Thiselton, 『고린도전서』, 307.

5.3.1.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관련된 문제(11:2-16)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상스러운 일이었으며 창녀로 간주 되었다. 더욱이 여자의 짧은 머리는 행정 기관에서 창녀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관행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다.⁷⁶ 본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공적 예배 시 여자의 기도와 예언을 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그는 공적 예배 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면 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관계성’, 다시 말해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차별을 나타내는 구절이 아닌 다른 성별 간의 구별¹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⁷⁷ 이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및 상호의존성을 설명한다. 7절을 통해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존재의 ‘영광’ 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⁷⁸ 바울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어졌음을 인정하지만(11:8-9),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 났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평등을 주장 한다(11:11-12). 바울은 본성과 관례를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짓는다. 본성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고, 관례는 교회 안의 일치된 사고와 행동이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암시를 준다.⁷⁹ 결론적으로 비록 여자들에게 기도와 예언의 자유가

⁷⁶ 김지철, 『고린도전서』, 423.

⁷⁷ Ibid., 417.

⁷⁸ Thiselton, 『고린도전서』, 314.

⁷⁹ 김지철, 『고린도전서』, 437.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문화와 종교의 관습을 존중해야 하다고 그는 가르친다.

5.3.2. 성만찬의 제정(11:17-34)

본 단락에서 바울은 성만찬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다. 공동체 안의 분쟁으로 인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쟁은 ‘부유한 자들’ 과 ‘가난한 자들’ 의 ‘계층 간의 분쟁’ 이다. 왜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 당시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집주인과 선별된 손님이 사용하는 ‘트리클리니움(triclinium)’ 과 덜 중요한 손님이 사용하는 ‘아트리움(atrium)’ 으로 분리되어있었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부유한자들은 ‘아트리움’ 에서 가난한자들은 ‘트리클리니움’ 에서 식사를 했다.⁸⁰ 따라서 부유한 자들은 더 좋은 음식과 술을 먹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티슬턴에 의하면 19절의 ‘과당이 있어야 한다’ 는 말은 부유한 자들의 말이다. 그동안 바울이 공동체 안의 분쟁과 과당을 끊임없이 꾸짖었기 때문에 티슬턴의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했고, 이러한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다(11:20-22). 바울은 이제 전승을 토대로 이야기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며, 새 언약은 진정한 교제를 의미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언약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헌신과 상호책임의 관계가 된다.⁸¹ 그러나 부유한 자들의 행동은 그 의미를 퇴색시켰고, 따라서 그들의 만찬은

⁸⁰ Thiselton, 『고린도전서』, 326.

⁸¹ 김지철, 『고린도전서』, 452.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11장 27절과 28절은 의로운 사람들만 만찬에 참여 해야 하며, 개인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었다. 그러나 27절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은 분열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말하며, 28절의 ‘자기를 살피라’ 는 말은 부유한 자들의 행동이 다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⁸² 29절의 ‘주의 몸을 분별 한다’ 는 것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교정함으로 세상과 함께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33절의 ‘기다리라’ 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식사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함께 먹으라는 뜻이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환영함으로 사회적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라는 뜻이다.⁸³ 어떠한 의미건 기다림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 바울은 ‘그 밖의 일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는 말을 끝으로 성만찬의 문제를 마무리한다.

5.4. 나가는 말

본 단락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이들을 위한 ‘존중’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이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면 먹지 않아야 했다. 또한 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⁸² Hays, 『고린도전서』, 336.

⁸³ Ibid., 340.

자유하고 평등함으로 기도와 예언을 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예배에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들은 머리를 가려야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서도 그들은 다른 이를 ‘존중’ 하기 위해 기다려야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유익하게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한 자유이다.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갈등으로 병들어 있다. 두 교회로 찢어진 교회, 표면적으로 한 교회이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사분 오별 나누어진 교회가 많다. 본 단락에 기록된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5.5. 토론을 위한 질문

- 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는 없는가? 있다면, 그 우상은 무엇이며, 그 우상에서 떠나는 길은 무엇인가?
- ㉕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10:32-33)이 실제로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으며,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은 무엇인가?
- ㉖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 ㉗ 본 단락(11:4-5)에 나오는 예언은 무엇이며, 오늘날 이 예언의 올바른 활용은 무엇인가?
- ㉘ 오늘날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견이 있다. 본 단락(11:2-16)에 근거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6. 은사의 목적과 사용법 (12:1-14:40)

6.1. 들어가는 말

본 단락 은사라는 주제로 연결된다. 이 주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편지에 제시한 것으로써, 그들 안에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은사의 속성과 은사 사용을 위한 원리를 제시한 후, 이를 고린도 교회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왜곡된 은사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다.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의 교훈을 살핌으로, 은사의 바른 사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6.2.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12:1-31)

6.2.1. 신령한 것의 본질(1-3절)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것은 앞으로 살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전제이다. 바울은 이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게 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성령으로 말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단언한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신령한 것’의 본질이다.⁸⁴

⁸⁴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353.

6.2.2. 같은 성령 다양한 은사(4-11절)

이 단락은 은사의 속성과 관련하여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섬김의 방법, 다양한 은사의 분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같은 영, 같은 주, 같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다양한 모양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하나님 한 분께서 의도하신 공통된 목적을 가진다. 그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이다. 이를 근거해 바울은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되거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없다고 교훈한다.⁸⁵

6.2.3.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12-31절)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한다. 앞서 말한 은사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지체에 비유되며, 이 지체들이 모여 몸인 교회를 이룬다. 몸에서는 어떤 지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지체의 고통이나 기쁨을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써 공유한다. 또한, 한 종류의 지체만 있다면 몸을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도 각 구성원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진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몸 된 교회와 그를 이루는 각 성도가 그들 간의 은사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은사를 바라보는 바른 태도를 갖추라고 권한다. 한편, 마지막 31절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과 ‘가장 좋은 길’ 을 보여줄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은사에 대하여 결론을 맺지 않고, 이 주제가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⁸⁵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353.

6.3. 더 큰 은사를 위한 좋은 길, 사랑(13:1-13)

바울은 바로 앞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 및 ‘가장 좋은 길’에 대하여 언급한 직후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한다. 13장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사랑을 ‘더욱 큰 은사’로 해석⁸⁶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을 더욱 큰 은사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써 해석⁸⁷하는 것이다. 이 두 해석 중,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13장 서두에서 바울이 사랑을 은사들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울은 사랑을 ‘바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는 원리’로써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박익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둘째, 신앙생활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어떤 은사, 믿음, 헌신보다 사랑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셋째,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⁸⁸

6.3.1. 사랑 없는 은사의 무익함(1-3절)

본 단락에서 바울은 사랑 없이 사용된 은사들에 의한 결과들을 나열하고 있다. 사랑 없이 은사가 사용될 경우 그 은사는 마치 소음과 같은 방해 요소가 된다. 능력이 아주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 특히, 1절과 2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은사인 방언과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⁸⁶ Thiselton, 『고린도전서』, 386.

⁸⁷ 김지철, 『고린도전서』, 492.

⁸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397-98.

강조한다.⁸⁹

6.3.2.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4-7절)

본 단락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사랑의 모습들에 대한 부정 표현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지 못한 사랑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⁹⁰ 즉,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과 태도들을 묘사함으로써 이를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6.3.3. 사랑의 영원성(8-13절)

본 단락에서 바울은 사랑과 은사의 성격을 대조시킨다. 사랑은 영원성을 지니며 온전한 것인데 반해, 은사들은 현재 부분적이며 종말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랑은 현재의 삶에도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모든 약속의 소망이 실현된 다음에도 유효하다.⁹¹ 이것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은사는 없어져도 사랑은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임을 바울은 교훈한다.

⁸⁹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395.

⁹⁰ Hays, 『고린도전서』, 373-75.

⁹¹ 김지철, 『고린도전서』, 517.

6.4. 은사 사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14:1-40)

앞서 언급한 대로 12장 31절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는 권면으로 끝이 났다. 이어 13장은 더욱 큰 은사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는 말로 시작된다.

6.4.1.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1-5절)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한다. 그 이유는, 예언이 다른 사람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반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겠지만 남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5a절). 다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은사를 평가한다면, 확실히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것을 강조한다.⁹²

6.4.2.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6-19절)

본 단락에서 바울은 네 가지 비유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말의 무익함을 밝힌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12절),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들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또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 왔다.⁹³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향, 즉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 방언을

⁹² Thiselton, 『고린도전서』, 424.

⁹³ Hays, 『고린도전서』, 384.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사모할 것을 권한다(13절). 또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방언을 절제하고 예언을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가르친다.

6.4.3.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는 은사(20-25절)

본 단락에서 바울은 한 가지 이슈를 더 제기한다. 그것은 은사 사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영적 은사들을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삼는 것은 유치한 일이라고 말한다. 성숙한 관점은 이 은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다.⁹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불신의 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⁹⁵ 그러나 그들을 배려하여 예언을 사용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그 예언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심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랑으로 사용하는 은사는 지혜롭고 성숙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게 한다.

6.4.4. 질서 있는 예배(26-33a절)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충고(33b-40절)

바울은 이제 좀 더 교회의 모임,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26절). 그런데 26절에서 32절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와 매우 달라 보인다. 이들의 모임은 정해진 형식이 없이 성령의 인도 아래 각자의 은사들을 즉흥적으로 사용하며 진행되는 예배의 모습으로 보인다.⁹⁶

⁹⁴ Hays, 『고린도전서』, 391.

⁹⁵ 김지철, 『고린도전서』, 545-46.

⁹⁶ Hays, 『고린도전서』, 395-96.

고린도교회의 은사 오용 문제는 아마도 이런 예배 속에서 더 두드러져 문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자유로운 형식의 고린도 교회 예배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규칙을 제시한다. 그 규칙의 핵심은 예배에 포함되는 모든 찬송, 기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12-14장 전체를 통해 일관적으로 주장한 주제이다. 그 구체적 적용으로써 공 예배 시 통역이 없는 경우 방언은 하지 말 것을 말한다. 또한, 예언하고자 하는 자는 차례대로 한 명씩 말하며 두세 명 정도만 예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하여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이를 통해 권면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바울이 촉구한 것이다.

6.4.5.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충고(33b-40절)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질서를 따라야 할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먼저 바울은 떠들거나 불쑥 질문을 던지는 여성들에게 잠잠 하라 충고한다. 이 충고는 여성들에게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 예배 시 불필요한 말을 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제지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다.⁹⁷ 또 다른 충고의 대상은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한 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와 은사만을 주장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무관심했던 자들일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자라면, 자신이 편지에 쓴 것이 주의 명령인 것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38절에서 ‘알지 못하다’는 말이 능동태와 수동태로 연이어 두 번

⁹⁷ Hays, 『고린도전서』, 404.

나타남으로써 그 뜻이 더 분명해진다. 즉, 아무리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확신해도 바울의 지침을 주의 명령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확신은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⁹⁸ 마지막 39절과 40절은 14장의 결론이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언을 사모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은사를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공동체가 지향할 모습으로 모든 일을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강조한다.

6.5. 나가는 말

은사는 개인을 위한 신령한 능력이 아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각 지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사랑이다.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넣어 사랑으로 은사가 행해지는 모습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거나 섬길 때 그 원동력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 무익하며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6.6. 토론을 위한 질문

- ㉔ ‘성령의 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계발된 재능이나 타고난 성품도 포함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자.

⁹⁸ 김지철, 『고린도전서』, 557-58.

- ㉔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 같은가?
- ㉕ 14장 34절과 35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내용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㉖ 방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12:10)이 될 수 있는가?
- ㉗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인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12:7)을 주는가?

7. 부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15:1-16:24)

7.1.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부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오늘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회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활하게 될 것인가?’, ‘만일 부활하게 된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질문하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35절). 본 단락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부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세 부분, ‘그리스도의 부활(15:1-11), 죽은 자의 부활(15:12-34), 그리고 부활의 몸(15:35-58)으로 나누어 본문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한다’⁹⁹ 더불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헌금의 문제와 끝인사도 함께 살펴 봄을 통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하려 한다.

⁹⁹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40.

7.2. 그리스도의 부활 전승(15:1-11)

본 단락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뿌린 복음에 관해 강조한다. 그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 그 복음의 전승을 왜곡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영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본 허다한 증인들 즉, 게바와 열두 제자에게와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사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전승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자신의 체험으로 논증한다. 또한 바울은 3b-5절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으로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밝힌다. 5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는데, 특히 ‘나타나셨다’ 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그가 ‘살아나셨다’ 는 확신을 하고 보아야 한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 라는 고백은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됨을 그는 강조한다.¹⁰⁰

¹⁰⁰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48.

7.3. 죽은 자들의 부활(15:12-34)

7.3.1.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의 부활(15:12-19)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다. 아마도 그리스의 영혼 불멸설의 영향을 받아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본 단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서술한다.

A :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13b절),

B :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게 되고(16b절).

A1 :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14b절),

B2 : “복음의 선포는 헛되고(17b절), 믿음도 헛되고(14c절),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15절),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17c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한다(18절)” .

이처럼 부활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게 되며,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따라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19절)는 것이 바울의 논지의 핵심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역설한다.¹⁰¹

7.3.2. 세상의 종말(15:20-28)

본 단락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예로 든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강조한다. 그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바울은 부활을 단지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 20절의 ‘첫 열매’란 구약에서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를 의미한다(출 3:16). 다시 말해 ‘첫 열매’란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의미한다. 동시에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근원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22절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두 구절의 병행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을 보여준다. 24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심판하고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드리는 것이다. 이는 종말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7.3.3.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추가적인 논증(15:29-34)

본 단락에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조한다. 바로 초대 교회가 지켜온 관행과, 자신의 경험이다. 초대교회 관행 가운데, '대리세례'가 있었다. 이것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세례였다.

¹⁰¹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56.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세례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을 반증한다. 바울은 이런 관행을 비판하면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대리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바울 자신의 체험을 들어 부활을 설명한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손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위험을 잘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주어질 보상을 향한 확신과 기대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와 32절에 ‘맹수와 싸웠다’는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곤경 속에서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향한 소망과 부활 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향한 기대 때문이었다. 33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결국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함께 타락할 것임을 경고한다.

7.4. 부활의 몸에 대한 논의(15:35-58)

본 단락은 두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35a절)와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하는가?’(35b절)이다. 그는 이 답변에서 이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게 될 자들에게 일어날 일도 함께 설명한다.¹⁰²

¹⁰²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72.

7.4.1. 죽은 자들은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15:35-49)

본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갖게 되는 부활의 ‘몸’에 관해 설명하며, 지금과 똑같은 몸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말한다. 이것을 각양 생물체의 육체와 천체의 영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헬라의 사상을 부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동일한 것이라고 믿는 유대적 관념도 부정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전개한다.¹⁰³ 35절에서 바울은 ‘어떻게’와 ‘어떠한 몸으로’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관해 설명한다. 바울은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하면서(36절), 첫 번째 질문이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라면(35a절),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말한다(35b절). 36절에서 41절은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에 대한 설명이다.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의 씨를 비유로 들어설명 한다. 씨앗이 죽어야만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현재의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써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다. 바울은 식물계에 있어서 물질이 불멸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같지 않음을 말한다. 결국, 그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며 성장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을 예로 들면서, 땅에 심긴 씨가 완전한 새로운 형체로 싹을 피우듯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완전한 새로운 형체를 갖게 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씨앗과 열매는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씨앗 비유의 핵심은 죽은 씨앗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인간의 죽은

¹⁰³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75.

몸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그 형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은 지상에서의 우리 몸, 다시 말해 제약 아래 있는 인간의 현재의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44절과 46절에 ‘신령한’ 혹은 ‘영적인’ 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난 새로운 몸, 다시 말하면 장차 있을 부활 때에 부여받고 입게 될 몸을 의미한다.¹⁰⁴ 창세기2장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바울의 대조적 해석에 따르면 생명이 된(45절) 첫째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그리스도)은 사실뿐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이다. 첫째 인간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고, 우리가 흙으로 된 아담의 형상을 지녔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될 것을 바울은 논증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다(22절).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 삶의 과멸과 유한성을 대표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대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49절).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으로서 현재의 몸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또한, 쇠하지 않는 불멸적,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서 현재와는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몸이 될 것이다.¹⁰⁵

7.4.2.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 하는가?(15:50-58)

¹⁰⁴ C.K Barrett,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424.

¹⁰⁵ Blomberg, 『고린도전서』, 347.

본 단락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에 대한 바울의 답을 기록한다. ‘살과 피’ (50절)를 지닌 인간의 몸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함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실현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¹⁰⁶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52절)는 진술은 ‘변화’ 되는 ‘우리’ 가 원래 지니고 있던 형질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그때 갑자기 ‘기적적’ 으로 받게 될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그 ‘변화’ 가 시간상으로 과거의 역사와 단절되어 일어나는 초월적 사건일 뿐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과거의 형질과는 전혀 새로운 형질을 창조하는 사건임을 암시한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바울의 의도는 살아 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똑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⁷ 재림 때에는 살아 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모두 변화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나, 우리는 그 변화를 바라며 언제나 기뻐 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듯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옷 입게 될 것이다.¹⁰⁸

7.5. 현금 모금에 대한 지시(16:1-4)

¹⁰⁶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80.

¹⁰⁷ Barrett, 『고린토전서』, 431.

¹⁰⁸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483.

본 단락에서 바울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한다.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이방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계속해 왔다. 바울은 이 헌금에 관해 권하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헌금을 따로 모아두라’는 것은 예배 중에 거두지 말고 미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따로 모아두어 바울이 도착 후에야 일시에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을 예루살렘에 직접 전달하는데, 보낼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일임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헌금문제와 관련해서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위함 때문이었다.

7.6. 끝인사 (16:5-24)

7.6.1. 바울의 여행 계획과 마지막 당부(16:5-24)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은 마케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아 교회를 거쳐 다시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계획을 밝히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과 신앙의사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바울이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무장한 군인처럼 영적 싸움에서 맞서 싸우라는 당부의 말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한다. 또한 스테바나를 위해 추가적인 부락을 한다. 바울은 스테바나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훈을 잘 따르라는 권면을 한다.

7.6.2. 작별인사(16:19-24)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문안하라’는 말이 다섯 번 반복되는데 첫째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그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이어 에베소에 있는 모든 형제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함을 전한다. 문안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 지역 교회로 흩어져 있지만, 복음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¹⁰⁹ 그는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촉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들에게 친필로 직접 인사하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를 덧붙임으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신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다.

7.7. 나가는 말

본 단락을 통해 바울이 전한 핵심은 부활을 향한 소망이며, 부활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이다. 이 부활은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며,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신비인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다 바울은 논증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예언자적

¹⁰⁹ 김지철, 『고린도전서』, 642.

목소리를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부활을 향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본 단락의 바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은, 우리에게 떨림과 소망을 준다. 이 소망을 회복하는 길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나아갈 길임을 믿는다. 깨어 있으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건하게 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7.8. 토론을 위한 질문

- ㉠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올 때 종말이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 ㉡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의 영과 육이 새 생명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가?
- ㉢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 ㉣ 죽은 자의 시신을 매장할 것인가, 화장할 것인가를 두고 여전한 이견이 있다. 이 논쟁이 본 단락의 바울의 부활에 관한 설명을 근거했을 때, 유의미한 논쟁이 될 수 있는가?
- ㉤ 믿지 않고 죽는 자도 부활 할 수 있는가?

제 3 장

적용 설교

1. 십자가, 분열 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약 (1장 1절 - 2장 16절)

1.1. 도입

미국에 ‘브레드 부시먼’ 이란 이름의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무려 30년에 걸쳐서 인간의 공격성에 관해 연구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게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총기 난사범을 예로 들었어요. 수십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총으로 난사하는 그 악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그 뿌리에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연구를 위해 몇몇 총기 난사범들을 그가 만나, 그들을 인터뷰 했을 때, 발견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른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뭐였었는가, 바로 “내가 우월하다” 라고 믿는, “ 내가 특별하다” 라고 하는 그 그릇된 믿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9년에 일어난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그가 했어요. “왜 무고한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나?” 범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싶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범인이 직접 밝힌, 범행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찌들어서 총을 난사하는 게 아니라, ” 내가 생명을 주관

하는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 또 ” 내가 얼마든 그럴 수 있는 우월한 자라는 믿음 “, 그 비대한 자아가 무고한 생명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 만악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 결론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 번 끌고 와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 속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모든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쟁과 갈등은 악이죠. 그 악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는 걸까요? 그 뿌리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라고 믿는 왜곡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내가’ 라는 단어가, ‘네가’ 라는 단어로만 바뀌어도,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종식될 거예요. “네가 나보다 우월하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러면 어떤 갈등과 분쟁도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떤 마음 가지고 삽니까? ‘네가’ 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옳다 이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들끼리, ‘내가’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요.

1.2. 본문 접근

오늘 본문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가 큰 분쟁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역만리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아니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을 전달해야 했을 정도로, 큰 분쟁이었습니다.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다들 아시듯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뿌리에서 자라, 서로 연대하며, 하나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그 교회가 분쟁하게 된 것일까, 본문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쪽으로 쪼개졌어요. 하나 되었던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표면적인 이유가 “세레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레’ 가 얼마나 거룩한 예식인가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겉으로 보기에,

그 세례가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세례 문제를 먼저 지적하죠.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괜히 세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 거룩한 예식이 빌미가 되어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세례 문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세례를 두고, 누구에게 받은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가 하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의 서열을 정해 놓고, 누구에게 세례받은 자가 더 높은가? 더 잘났는가? 더 신령한가? 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교회 내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 파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주장하며, 또 다른 세력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극심한 분쟁과 갈등에 빠졌어요. 뭐 때문이에요? 세례 때문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세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발견되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브레드 부시먼’이 발견한 만악의 근원,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믿음, 그 그릇된 믿음입니다.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잘나고 영적인가? 서로 각자가 받은 세례를 내세우며, ‘바울’에게 세례받은 내가(개척자),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내가(말 권위), ‘게바’에게 세례받은 내가(초대교회 기둥) 더 잘났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회 안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타고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확보하던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어떤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잘 알면, 그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 힘있는 자의 그 힘과 영향력이 마치 제것인 양 자랑하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겨난 파당들 역시 그런 색깔을 가진 무리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를 들먹이며,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나고, 영적인 사람임을 서

로 자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치와 하나 됨을 촉구한 것이죠.

주목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호소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가르침 앞에 ‘진실로, 진실로’란 표현을 덧붙이셨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강조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고작 한 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은 공동체의 일치를 촉구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말하라, 분쟁을 없이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모두 공동체의 일치와 연대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 지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공동체의 하나 됨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제자 공동체를 떠나시는 데,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으셨겠습니까? 제자 공동체 정말 영망이었잖아요.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런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얼마나 구할 것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마지막 날 밤, 제자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이 하나 됨이 깨졌습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

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분오열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다른 뜻을 품으며 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가 그 구석구석 하나 됨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의 사례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떠들고 자랑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났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기로 유명한 교회에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탐방 중에 그 교회의 실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받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30대 그룹, 40대 그룹, 노년 그룹 등, 연령 기준으로 혹은 관심사 기준으로 목장을 묶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그런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이면, 나눌 대화가 있을까? 모래알처럼 대화가 다로 놀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 된 목장을 보았습니다. 연령이라는, 관심사라는 공통점이 없어도, 소그룹원들이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나눔을 통해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의 권면으로 몽친 진주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우월함을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 나의 약함을 정직히 고백하는 공동체 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칼을 보습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각자의 판단이라는 칼,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그 판단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게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비난과 비판의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사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칼을 내려 놓아야 전쟁과 갈등이 그칩니다. 그 칼을 내려 놓는 비결은, 나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 그 고백으로 모이는 공동체만이 칼을 내려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칼을 보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우월성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을 최대한 감추고 나의 강점만을 드러내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비결이라 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에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차 되도록 나를 포장하며, 되도록 나의 약점을 감추며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진정 은혜가 살아 있는 공동체는, 나의 약함을 향한 고백과, 그 약함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자랑하며, 나의 우월성을 자랑하다가 교회가 사분오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다.

교회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결국 갈라지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며 내 안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 된 공동체는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약함을 나의 죄와 허물을 자랑할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1.3. 본문 심화

교회가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능력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본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 사형을 혐오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십자가를 이야기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불온한 나무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할 정도로 십자가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로마 철학자요 정치가로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 로마인들이 얼마나 극도로 혐오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모든 인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사도는 조금도 가감 없이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로마인들, 다시 말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저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은 알수도, 그 은혜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단지, 혐오스러운 피해야 할 어떤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헬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헬라 영향권 아래서 평생을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들 또한 십자가란 미련한 것이요, 혐오스럽고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왔을 것이까요. 그러나 사도의 선언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접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두 나의 잘남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장식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진위는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없이 죽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에게 십자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너를 구원한 능력인지, 이게 단순한 장식품인지, 아니면 너를 살린 주의 은혜의 흔적인지,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이 십자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1.4. 소그룹 나눔을 위한 적용 질문

- ㉔ 본문 속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 ㉕ 오늘 내가 속한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 ㉖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2.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의 포기(8장 1절 - 9장 27절)

2.1. 도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기본권이라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가진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이해됩니다. 누구든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신념보다 앞선 보편적 선형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고, 국가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본권은 총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권입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권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번째 참전권, 다섯 번째 청구권이 더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신이 가진 이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되면 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목소리를 내고 법적으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2.2. 본문 접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삶 속에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듯 본문 당시 사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신 권리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였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14절도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전과 제단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성전과 제단에 모인 양식으로 생계를 꾸릴 권리가 있듯.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을 일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 또한 교회에 모아진 양식으로 생계를 꾸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도는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주장했던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꾸린다는 말입니다. 생활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도에게 친히 보장하신 권리, 모든 사도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권리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쫓쫓 굶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산속에서 똥뿌리나 캐 먹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삯을 받는 게 마땅하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으면 복음이 전해진 그 집의 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자신의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이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판지 걸지 않았습니.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뭘니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 모든 사도에게 주신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상합니다. 다른 사도들 다 이 권리를 누리며 사는데, 왜 그는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까요? 교회에 지원을 받는 삶이 내키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뭘니까?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의 권리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아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까요 그러나 그는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신 복음 사역과 더불어 천막을 지어 파는 일을 병행하며 생계유지와 전도 여행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2.3. 본문 심화

왜 그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뿌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전 하나님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전도하고 그 속에 복음을 뿌리는 일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앙의 싹이 움튼 초신자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하면 시험 안들 사람 있을까요? “아하, 이제야 요놈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복음 어찌고 달콤한 말 늘어 놓더니 결국 목적은 내 돈이었구나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 알았고 구약 성서에 익숙한 유대인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곳은 사도의 권리를 누리려도 시험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 누리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회했던 본문 속 고린도교회 같은 이방 교회는, 지중해 인근의 여러 교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신앙이 약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사도의 권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들에게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시험에 들어 복음 자체를 오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아니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범사에 참았던 겁니다. -바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단지 사도의 권리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안락한 일상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고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안락함을 원합니다. 추구할 권리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 경험한 고생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러 다닌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눈물겨운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걷는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총 세 차례나 그 길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 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던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야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이 직면한 복음을 우리도 직면했습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삶을 뒤흔든 복음을 우리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의 이 질문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질문으로 느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또 그 권리를 누리려고 싶지만 범사에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이 저에게 없어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유혹이 크진 않지만, 때론 저도 술에 취해 몽롱한 기분에 빠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 술 마실 자유가 없을까요?저도 성인인데 술 취할 권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에 관하여는 저의 권리

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삽니다. 일절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술 마신다고 하면 시험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술 마실 자유가 있지만, 제가 그 자유를 내 자유라고 생각 없이 누리면 마음 상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에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제가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은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해 나의 플렉스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면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 듣고 배워, 지금은 제 신앙의 지표로 삼는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알게 된다” 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때 쓰는 게 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 인생 위해 싸워주시길 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제가 포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무엇이든 범사에 참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복된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만약 그게 복음에 장애가 있게 하는 일이라면 자진해서 내려 놓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여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가는 기적이 있길 축복합니다.

2.4. 소그룹 나눔을 위한 적용 질문

- ㉔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도가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㉕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㉖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만약 없다면, 왜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3. 부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15:1-16:24)

3.1. 도입

예전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청년이 긴 기다림 끝에 한 건설한 회사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좁았던 청년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던 터라, 이 청년의 취업 소식이 어느 때보다 반가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들뜨던지 엄청 축복해 주었어요. 제가 빌어줄 수 있는 복은 다 빌어 주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해 직장생활을 시작 한지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청년과 다시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사에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일은 재미있는지 동료들과는 원만히 지내는지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전화기 넘어 들려온 청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제법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료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해” 한 동료가 이 청년의 면전에 대고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청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담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인걸 들키면 어쩌나,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노라 저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착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를 은근히 밀어내는 사람 많고, 나에게 평균 이상의 착함과 정직성의 기준을 들먹이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3.2. 본문 접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발칙한 말인가 싶겠지만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만 잘 지키고 살면 무방합니다. 누구도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법에 정해진 불법적 행위만 안 하고 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범 시민이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은 기본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까지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아주 낮은 세상 법과는 다르게 성경 속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그 기준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단지 살인(폭행)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더 근원적인 인간 내면의 분노를 짚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손가락질하지 말라, 성경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합니다. 때론 부모에게, 때론 친구에게, 때론 길을

걷다 마주친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세상 법은 말합니다. “너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 다만 살인만 하지마, 폭행만 하지마, 그럼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라가라 욕하지도 말라, 미련한 놈이라 손가락질도 말라” 과연 이게 가능한 일 인가 싶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이걸 지키자니 너무 버겁고, 안 지키자니 마음 한쪽이 너무 불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성경 속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하시듯,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우선순위의 최고봉이 하나님이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다른 것들 얼마든 포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소중한 거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소중한 것 우리 삶에 차고 넘칩니다. 누구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이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은, 마땅히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은 이방인과 세리들도 한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닌 원수 사랑입니다.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보려 몸부림은 치지만, 너무 어려운 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왜 성도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야속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다는 것 자체가 내 평판에 마이너스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높고 버겁습니다. 지키자니 힘겹고 버리자니 마음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단지 먼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넘어 성도에게 예비 된 영원한 삶이 있다는 방증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또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꾀꾀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삶도 헛것이고 어떻게든 말씀 지키려 몸부림치는 삶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허공에 삽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과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15:12)”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며, 그 믿음을 가지라 사도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불완전한 믿음을 단박에 정리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믿음, 먼지로 흩어진다는 믿음을 단박에 정리하는 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무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먼지로 흩어지고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까? 그렇기에 예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생이 끝이 아니요,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예비 되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그런데도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중요한 의미 하나를 얻게 됩니다. 때론 어렵고 버겁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3. 본문 심화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경, 특히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의리라고는 눈썹 만큼도 없는 배신자들이요 겁쟁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 지방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메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몸이 찢겨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날조한 거짓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을 밀어붙이게 되면 제자들은 거짓을 위해 박해당하고 그 거짓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위선자가 동시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다름 아닌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2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글과 강연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혐오

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인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 듯싶지만, 실제 그는 이렇게 부활을 조롱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법적 유효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린이의 증언이 온전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여성의 증언 또한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만약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더 잘 꾸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으니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든 말든 그저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부활의 증거는 더 존재합니다. 빈 무덤, 헝클어지지 않은 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행적에 대한 기록 등이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 증거를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의 증거를 찾는 동기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않을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성령께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사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도, 성도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실존함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 어려운 시기 마지막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3.4. 소그룹 나눔을 위한 적용 질문

- ㉔ 현재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까, 구별됨이 있습니까?

- ㉞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분명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 ㉞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설교 중 예로든 부활의 근거 중 가장 나에게 와닿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 외에 다른 근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참고 문헌

-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 정성국.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20.
- 권연경.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서울: IVP, 2022.
- 박익수.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6.
- 김지철.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석민. 『이해와설교를 돕기 위한 고린도후서 주석』. 서울: 이레서원, 2016.
- 최원준, 『고린도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 이진섭, ‘사랑으로 은사를: 은사 경쟁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고전 13장), 『성경과 교회 14』 2016.
- 이진섭, ‘교회의 구원과 멸망 위험(고전 3:14~15), 『성경과 교회』 6(2008)
- 앤서니 티슬턴/권연경 옮김. 『고린도전서』. 서울: SFC출판사, 2011.
- 앤서니 티슬턴/최승락 옮김. 『고린도후서』. 서울: SFC출판사, 2022.
- 앤서니 티슬턴/신지철 옮김. 『NIGTC 고린도전서』. 서울: 새물결출판사, 2022.
- 케네스 베일리/김귀탁 옮김.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크레이그 블롬버그/채천서 옮김. 『고린도 전서』. 서울: 솔로몬, 2012.
- 리처드 헤이스/유승원 옮김. 『고린도 전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 로날드 토마스/김명일 옮김, 『TNTC 고린도 전서』. 서울: CLC, 2022.
- 크루즈 콜린/왕인성 옮김, 『TNTC 고린도 후서』. 서울: CLC, 2013.

폴 바네트/정옥배 옮김 『BST 고린도 후서』 . 서울: IVP, 2002.

킹슬리 바넷/한국신학연구소 옮김. 『고린도전서』 .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Fee,G.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angmin Heo

Place and Date of Birth: Gwangju, South Korea, May 22, 1986

Parent's Names: Taeho Heo / Hyesuk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ungduk High School 117-8, Wolgye-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2005
Collegiate: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S	Aug 25, 2011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0,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angmin Heo

Name typed

February 28, 2023

Date